

안녕하세요?

강동균 집사님과 NCFC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드립니다.

집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한 집사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므로 집사님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선교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또 다른 좋은 시기를 가져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사역 전략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동 가능한
사역, 같은 종족을 만나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번 달에도 다가오는
지역 지도자 훈련은 4월 14일과 15일에 YWAM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Assam 에서도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편지에서 우리의 미래 계획에 대해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티용